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생명력이 있는 존재. 고난과 시련 속에서.

튼튼한 즐거움 얻고

강인한 생명력.

있는 흔들려서 스스로

고난, 시련의 수용.

살아 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의인**

생명력이 있음을 보여 준다.

⇒ 고난, 시련 속에서 생명력을 얻음

바람은 오늘도 분다.

시련, 생명력을 강하게 하는 존재.

수만의 있는 제각기

몸을 얽은 하루를 가누고

일심동체. 하루를 가다듬어 흔들림 없이 보내고.

들판의 슬픔 하나 들판의 고독 하나

존재의 공간, 삶의 현실.

들판의 고통 하나도 **반복, 열거, 동일 문장구조의 반복.**

다른 곳에서 바람에 쓸리며

▲외부. 휩쓸리며.

▲자기를 헤집고 있다.

내면 세계. 혼란의 상태로 만들다.

⇒ 외부 시련으로 혼란을 겪는 내면

피하지 마라 **의지적, 적극적, 명령 어법**

빈 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성숙의 공간, 깨달음의 공간, 삶의 공간.

우리는 늘 흔들리고 있음을. **도치**

삶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라는 인식.

⇒ 적극적인 삶의 자세 견지



갈 래 : 자유시, 서정시

성 격 : 상징적, 고백적, 명상적, 의지적

정 서 : 의지, 깨달음

주 제 : 고난과 시련 속에서 성숙해지는 인생에 대한 깨달음

특 징 : ① 자연물에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음.

② 동일 문장구조의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

③ 대상과 화자 자신을 일치시켜 시상 전개.

해 설

이 시는 들판에 서 있는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음을 보며, 인생 또한 외부 시련을 수용하고 극복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시인의 인식이 드러난 시이다. 시인은 구체적 언어에 주목하여 대상의 동적 이미지(흔들리면서)와 몸의 이미지(튼튼한 줄기, 살아 있는 몸)를 포착하여 관념에서 탈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삶에서 주어지는 슬픔, 고독, 고통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할 것이 아니라 직접 대면하고 수용함을 통해 '빈 들에 가서' 더욱 성숙한 삶,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시인은 말하고 있다.

화자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바람 부는 들판에서 흔들림 가운데 생명력을 얻으며 잎을 엮어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잎들은 바람에 이리저리 쏠리면서 자신의 슬픔과 고독, 그리고 고통을 느끼며 진정한 자신을 찾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흔들리는 나무와 잎을 보면서 화자 자신도 흔들리는 삶 속에서 진정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